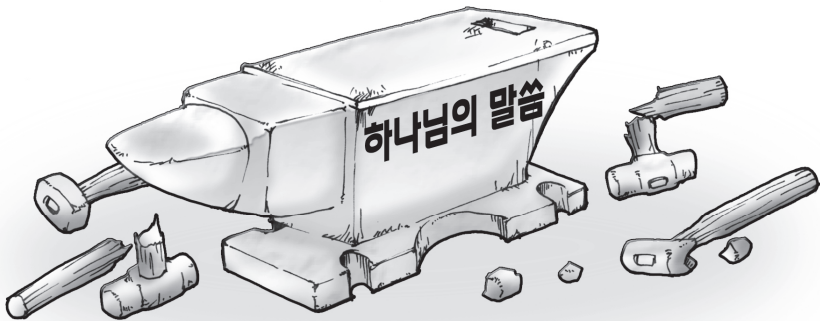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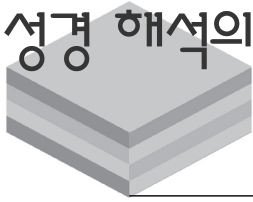


성경 해석의 중요성	3
성경을 바로 보자	9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19
성경적 세대주의	39
동방의 독수리와 14만 4천 명	57
위험한 QT	70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성경 해석의 중요성



Importance of The Bible Interpretation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
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빈야드
운동, 브라운스빌 부흥 및 펜사콜라 부흥 등의 거짓 부흥 운동이 기독교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또한 프라미스 키퍼(아버지 학교), 알파 코스, G12 등의 기독교 운동이
심리학을 동원하여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또 산불처럼 번지면서 성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미 선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해 소위 ‘휴거 파동’이
생긴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는 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이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믿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먼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려 합니다. 저는
태어남에서부터 감리교회에 다녔고 기계 공학을 전공했으며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생으로 또 교수로 지내며 미국의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 서적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근본주의적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보수적인 침례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뉴에이지 인본주의의 길로 내닫고 자유주의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배도 운동을 전개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 가가호호 전도하러 다니는 근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어 보면 어느 곳에서나 설교자들의 90% 이상이 근본적인 침례교 목사들입니다. 물론 저는 결코 침례교만 좋고 나머지 다른 교단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이런 침례교 목사들의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데 반해 한국 크리스천들의 다수는 성경 말씀을 비유적으로 믿고 해석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 및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에)의 저자인 클라렌스 라킨은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활약한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는 원래 성공회를 다녔고 세상의 학문으로는 기계 공학을 전공했으며 특히 제도를 담당하던 기계 공학도였습니다. 그는 서른 살쯤에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 철저한 ‘성경 신자’(Bible Believer)가 되었고, 그 뒤로 자신이 갖고 있던 제도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성경 속에 있는 진리들을 수백 개에 이르는 훌륭한 선도들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값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전통에 따라 성공회를 다니던 라킨 목사님이 그 교회가 가르쳐 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문맥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슴속에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그 결과 그가 저술한 여러 권의 책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심금을 울린 명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지은 책 중에 「경륜에 따른 진리」(*Dispensational Truth*)라는 책은 무려 40판 이상이나 출간되어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경륜에 따른 진리」를 요약한 「성경 바로 보기」는 원 제목이 딤후2:15에 따라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Rightly Dividing The Word*)입니다. 이 책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부터 37년 전 성경 해석의 어려움으로 답답해하던 차에 라킨 목사님의 책을 접하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비교해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수의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사람마다 자기 뜻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에 혼란이 오면 믿는 이들이 갈팡질팡하게 되며 소망이 흔들리게 되고 각종 이단이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바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자기의 믿는 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틴과 같은 성경 신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루 만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므두셀라는 문자 그대로 969세를 살았으며, 문자 그대로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으며,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나셨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요 교회는 교회이며, 천년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환난기 전에 교회가 휴거를 받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확신의 시대를 살면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따돌림을 받게 되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 자기가 믿는 바를 밝히지 못하지만, 저는 사람의 말이나 교단의 가르침에 상관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저는 그분께서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유적 해석 방법과 문자적 해석 방법이 어떻게 다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¹⁰ 그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¹²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¹³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¹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¹⁵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¹⁶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¹⁹ 그 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이다! ²⁰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²¹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³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보통 영해(靈解)라 불리는 비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위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모두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3절에 따라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어야만 합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이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 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죽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 끝은 세상의 끝입니다. 3절의 ‘세상 끝’과 13절의 ‘끝까지’의 끝과 14절의 ‘끝이 오리라’의 끝은 다 같은 끝입니다.

또한 이들은 산속으로 도망하는 것은 교회로 피신하는 것이고(16절), 아이를 가진 자들, 즉 임신한 자들은 아직까지 전도의 열매를 내지 못한 자들이며(19절), 겨울이란 믿음이 식은 때이고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주장합니다(20절). 또한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곧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겪으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환난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더없이 간단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입니다. 세상 끝에 144,000명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계7, 14장).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누군가가 보려면 반드시 유대 땅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곳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성전이지 결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해야만 하며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앞의 두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을 짓는 것뿐이며 이것을 위해 유대인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로 성전 건립을 위한 장소 때문에 지금까지 그토록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립되어야 비로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에 기록된 다음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위의 말씀이 성립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하며 분명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유대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따라서 큰 환난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산속으로 피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피신하려면 임신하여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여행할 수 없으므로 잡혀서 죽게 되고 역시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도망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 도망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위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유대 땅은 북반구에 있으므로 그곳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 되므로 아마도 주님께서는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여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난 전 휴거’라 부르며 성경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딤후 2:13). 세상의 창건 이래로 없었던 무서운 환난을 다 겪은 뒤에 휴거를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복된 소망입니까?

독자께서는 유명한 작가의 글을 읽을 때 비유로 읽습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친서를 주시면서 거기에 적힌 그대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며 읽고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게 기록되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통을 따라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경륜주의’(Dispensationalism) 혹은 ‘세대주의’라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지금까지 몇 세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몇 세대가 있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는 체계이며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비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에 근간을 둔 세대주의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오해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의 신학교와 교회들이 비유 해석을 중시하는 언약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디 독자들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기서 제시되는 논거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인 구원부터 재림의 소망과 부활, 천국과 지옥 교리까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크리스천의 출생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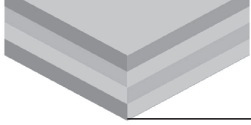
이 책자는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성경을 문맥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체계인 세대주의를 설명하며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이단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QT식 성경 해석의 문제들과 해결책을 보여 줍니다.¹⁾

바른 성경과 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통해 우리 주(主)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조명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¹²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¹³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¹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¹⁵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4:11-15).



1) 세대주의 글은 라킨과 켈러의 글을 모은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취하였고 ‘위험한 QT’는 김재욱 형제의 글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심정으로 아무 지식도 없이 무조건 간절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는 것이 참으로 큰 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도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요17:3).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뒤에도 성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권능을 가진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1. 성경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Biblos’에서 유래하였으며 5세기 이후부터는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즉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학이나 역사, 과학 또는 어떤 다른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와 인류에 관해 시대들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씩 주어졌습니다(히1:1). 주전 1492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대언했습니다.²⁾ 성경은 약 40명의 서로 다른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한 총 66권의

1) 말씀들은 영어로 ‘words’인데 성경에서 ‘words’는 항상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어 주신 단어들에 가리킨다.

2)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에서 ‘prophecy’ 혹은 ‘prophet’의 1차적 의미는 ‘남의

책(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기록자들 중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도 있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가와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도 있으며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지혜를 배운 사람, 마태와 같은 세금 징수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어부, 누가와 같은 의사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스가라와 같은 위대한 대언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여러 명의 인간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한 책’(One book)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기록되긴 했지만 성경은 결코 동양에 대한 서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각 페이지는 여러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 광야와 아라비아의 절벽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언덕과 마을들, 성전의 뜰, 베엘과 예리고의 대언자 학교, 페르시아의 수산 궁, 로마의 지하 감옥 그리고 에게해(海)의 외로운 밤도 섬 같은 곳이 그런 장소 중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기록’(마21:42; 벰후1:20), ‘거룩한 성경기록들’(롬1:2), ‘율법’(요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때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³⁾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입니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딤후3:15-17; 벰전1:23-25; 벰후1:20-21; 계 22:18-19).

1. 성경의 구성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됩니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개 영어 단어(구약 609,247개, 신약 179,0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과 에스더기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2절인데 그 가운데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말을 대신 전하다’ 또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언하다’ 혹은 ‘선지자’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대언하다’와 ‘대언자’로 번역해야 한다. 일례로 개역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은 모두 ‘대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대언이며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중 일부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3) 외경(Apocrypha)은 ‘숨겨진 글’을 뜻한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여기지만 역사를 통해 성경 신자들은 한 번도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외경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들을 담고 있다.

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램10:11; 단 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율법: 모세 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 (3) 거룩한 기록들: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터),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장과 절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눈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 테판)는 신약 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뒤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2. 성경의 주제와 내용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4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20:30-31; 요일5:20).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입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와 같은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14:1-9).

3. 성경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o 계시(Revelation)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측면이 있습니다.

- (1)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줍니다.
- (2)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 (3)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줍니다.

o 영감(Inspiration)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 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단어)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딤후 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every word)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이나 개념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 ‘모든 단어’(every word) - 으로 살 것이라.”(마4:4)고 말씀하셨습니다.

o 보존(Preservation)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시12:6-7).

o 번역(Translation)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 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o 해석(Interpretation)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합니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합니다.

4. 성경기록의 정경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의 39권과 신약 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화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5.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으며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메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뒤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힙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면서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같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대개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현대역본들은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6. 성경의 영향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습니다. 볼테르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줄 것입니다(막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4) 동적 일치 번역(의역)은 원어 성경의 단어를 일 대 일로 수용 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절의 뜻이나 사상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적 일치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

II.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성경은 결코 고대 역사, 신화, 전설, 종교적인 명상들과 계시 문학을 잡다하게 혼합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계시와 교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사사들)은 족장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며 재판관들보다는 대언자들(선지자들)이, 대언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신약의 요한 계시록이 없이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긴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은 이 책이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1. 문자적 해석이 핵심이다

성경은 문학 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1. 비유적 언어
2. 상징적 언어
3. 문자적 언어

비유적 언어는 앞뒤 문맥을 통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상징적 언어는 그 부분의 내용에서 또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참조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의미를 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 말씀의 대상이 중요하다

성경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일부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일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부는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셋으로 분류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10:32)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교회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으나 그 안의 모든 내용이 교회에 관한 것 혹은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문맥 밖에서 취해

교회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약속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을 취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모쓰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사/라*(사1:1).

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으므로 유대교의 색채가 짙습니다.⁵⁾ 야고보서는 ‘교회’가 아니라 ‘널리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약1:1).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면’(히6:4-6)이라는 말과 ‘고의로 죄를 지으면’(히10:26)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은 결코 다시 태어난 적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의 형제들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딤후3:16)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와 교훈이 됩니다(고전10:11).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5)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명백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히12:22-24). 신약 성경의 기독교회는 처음 형성될 때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고 오순절 사건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넬료 사건(행 10장)을 통해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기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갈2:7-10).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등이 기록한 교회 시대 초기의 글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에 유대교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심을 크게 갈망하였다(롬9:1-5).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설 것을 바라며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이 의미하듯이 이 글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내용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3.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면서 우리는 또한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 사역의 직분을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의미를 갖는 날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Times)와 ‘시기’(Seasons)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지나간 때’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히1:1-2)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에는 ‘무지하던 때’(행17:30), ‘이방인들의 때’(눅21:24), ‘새롭게 하는 때’(행3:19),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행3:21) 그리고 ‘때가 충만히 찬 경륜’(엡1:10) 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때’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권세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가 결코 지배하는 권세, 즉 왕국의 권세를 차지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처럼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것을 나누지 말아야 하며, 침례와 다시 태어남(중생), 율법과 은혜, 교회와 왕국처럼 그분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을 붙여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만으로 성경을 나누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우리는 시간과 영원에 관해서 그리고 시간 속에 등장하는 여러 시대와 경륜, 즉 하나님의 시대 경영 통치 체계에 관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되어 영과 육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⁶⁾



6) 더 자세한 것은 「성경 바로 보기」(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라며 위의 QR 코드를 찍으면 「성경 바로 보기」 PDF를 포함해서 다수의 책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4판

개정4판

성경 바로보기

라킨 외 지음
정동수 외 옮김


그리스도
예수안에


성경

바른 성경 바른 해석 바른 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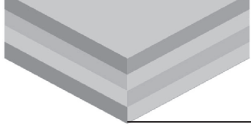
바로보기

라킨 외 지음 / 정동수 외 옮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2:15)

 그리스도 예수안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What Is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 개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외 없이 ‘세대주의’란 말을 언급하기만 하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대주의란 말은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저술 등이 자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복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려는 흥미를 처음으로 일깨워 준 성경 회의나 예언 집회 혹은 특별한 모임 등을 회상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란 말을 마치 재앙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대주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단 가르침이라는 말도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룹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가르침 역시 조직화 과정과 발전 과정을 겪어 왔지만 그 안에서 가르치는 기본 특징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의는 여러 차례 외부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왔으며 서투른 모방과 판에 박힌 비난 등은 세대주의의 관점을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세대주의의 관점을 조롱하곤 했습니다.

장로교가 주축인 국내에서는 처음에 세대주의가 도입되어 종말론에서 표준이 되었으나 날이 가면서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 장로교는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고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 교리’ 혹은 ‘준 이단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교회가 신학적/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국내에는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에는 크게 ‘신비주의적 종말관’과 ‘세대주의적 종말관’이 있으며 이 둘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펠시 콜레, 이장립 등이 주장하는 것은 신비주의적 종말론이며 헬 린제이,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등의 종말관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전자의 문제는 세대주의의 어떤 틀을 유지하는 듯하면서도 하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직통 계시에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시한부 종말론은 진정한 의미의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다릅니다. 미국의 정상적인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한국의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처럼 직통 계시를 믿고 생업을 버린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옷을 입고 자정에 휴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침례교가 주축인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에 출간된 「스코필드 주석성경」(*Scotfield Reference Bible*)의 영향으로 건전한 세대주의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신학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 체제든 민주당 체제든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근본 이유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세대주의 신학이 알게 모르게 확고히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가 있고 학구적이라는 신학교들 - 예를 들어 델러스, 탈봇, 무디, 그레이스, 펜사콜라¹⁾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 - 은 모두 건전한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서구에서 언약주의(칼빈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한 신학 체계입니다.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경 말씀이 달리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한 성경 해석 체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다만 끝 날에 이루어질 부분, 즉 종말론에서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로 인해 양 진영이 대립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천년왕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언약주의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으며 그것을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봅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달리 보므로 에스겔서 40-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약주

1)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는 렉크맨이 운영하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Pensacola Bible Institute, PBI, www.kjv1611.org)과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Pensacola Christian College, PCC, www.pcci.edu)가 있다. 국내에는 렉크맨의 영향을 받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PBI를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PBI는 렉크맨의 교회에서 밤에 모이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하다. 물론 야간 신학교라도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PBI가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과 그들의 교리의 창시자 렉크맨을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대학이다. PCC에서 발행되는 홈스쿨링 교재인 '아베카복'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이다.

의적 해석입니다.²⁾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요7:38)고 말씀하심으로 에덴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 8:5)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체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 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처럼 언약주의자들은 종말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해합니다. 반면에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제 동일한 장로교 저자가 스가랴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 메릴 언거(Unger, 1978)는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의 강림과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 속에서 주석을 하고 있다. 예로서 2장 1-13절의 축랑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축랑하는 환상은 ‘그 도시가 미래에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받는 환상(3:1-10)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을 그리고 있다(55쪽). 11장은 미래에 거짓 목자, 즉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며 12장은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고 말한다(206쪽).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방인들에게 포위될 것이며(12:1-9) 메시아 왕이 두 번째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2) 이 글은 <http://blog.daum.net/11christ/10411012>에서 취했으며 저자는 김정우로 되어 있다.

회개할 것이다(12:1-13:9).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승리를 거둘 것이나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산이 변형되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14장). 따라서 14장은 전적으로 예언적이다(wholly prophetic).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과거 역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238쪽). “스가랴 14장은 현시대의 관점에서도 전적으로 예언적이다.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석법은 문자적인 해석이다”(239쪽). 그리고 엥거는 파인버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장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때 스가랴가 지금까지 계시한 것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성에 대한 예언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스가랴서에서 감람산이 나누어지고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이미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리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엘이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일하시는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았을까? 선지자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해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상징과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선지자의 의미를 바로 캐어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결정하는 것이 종말과 연관된 본문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준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고난 가운데서 꿈과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에 개입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다. 묵시 문학은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종말론적인 최후의 승리를 제시하며 고난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한다. 신자들이 고난받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징(symbolism)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언약주의의 요점은 구약이나 신약의 예언 부분과 이스라엘 관련 부분을 모두 상징을 통해 비유적 표현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성경 해석 체계와 믿음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진지한 크리스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한 그들의 진지함을 따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은 곧 사도행전 1장 11-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언약주의자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의로 무시하고 영해하여 모두 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역시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음은 세대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언약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이 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³⁾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의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대주의자들도 대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술을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많습니다.

마티(Justine Martyr, 주후 110-165)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레니우스(Irenaeus, 주후 130-200)는 신약 성경 안에 네 복음서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주후 150-220)는 모세 세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아담, 노아, 아브라함)를 구분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 라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희생 법규의 제정은 이전 세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폐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늘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분인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3) 역사성 부분은 라이리(C. Ryrie)가 지은 「오늘날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Today*, 1999, Moody Press)에서 발췌하였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주후 1135-1202)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시대 역사 이론, 즉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영광 의의 미래 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퍼뜨린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사도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하여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원시의 혹은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는 훗날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포와르(Pierre Poiret, 주후 1646-1729)는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서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L'OEconomie Divine*)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 뒤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 신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특별한 경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J. Edwards, 주후 1639-1716)⁴⁾는 영국 국교회의 칼빈주의 목사로서 1699년에 「모든 세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A Complete History or Survey of All the Dispensations*)이란 제목의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했습니다. 그의 저술 목적은 ‘창조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이행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역시 세대주의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시자로 잘 알려진 와츠(I. Watts, 주후 1674-1748)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는 제목의 40페이지 논고에서 세대들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자신의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세대주의적 개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 세대 혹은 처음의 아담의 신앙
2.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뒤의 아담의 신앙
3. 노아 세대 혹은 노아의 신앙
4.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4) 이 사람은 미국의 청교도 목사로 대각성 운동의 촉매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른 사람이다.

5.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6. 기독교 세대

천년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체계는 현시대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하였지만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00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 줍니다.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C. I. Scofield)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였는데 그의 체계는 다비의 체계와 달랐습니다. 스코필드의 체계는 와츠의 체계와 비슷하며 다비의 체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에서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이 주후 100년경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순으로 볼 때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결코 종말론이나 원시적 형태의 세대주의가 종교 개혁 이전 시대에는 검토되지 않았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영역에서 교리의 체계적 발전이 그때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세대주의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가르쳐졌다.
- (2)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단지 종말론이란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 즉 세대주의는 최근의 것이며 따라서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으로부터 얻게 되는 결론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최종 권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모든 교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계시라는 빛을 통해 시험해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임마누엘 라쿤자가 만들었으므로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라쿤자가 7년 환난설의 주장자라고 말하며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 -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천주교 누룩 - 를 넣기 위해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 낸 이론입니다. 이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는 허수아비 이론을 가져다가 천주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아주 강력하게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삼위일체를 믿고 주장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환난기 역시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난기를 믿으면 천주교의 예수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역사의 판결이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를 믿으며 또한 이런 문제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가는 성경이 평범하게 밝혀 줄 것입니다.

B. 세대주의는 인위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궁극적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유대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마지막 세대요 일곱째 세대인 ‘천년왕국 시대’를 부각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세대주의에서 ‘세대’(Dispensation)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 혹은 경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보다는 경륜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체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거기에서 파생되어 한 경영 체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우리말로 ‘세대’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영 체계(세대)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법을 바꾸신다.
2.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상응하는 계시가 필요하다.
3. 사람 편에서도 상응하는 반응이 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외에도 세대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 개의 경영 체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경영 체계는 이러한 부차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험 -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
2. 책임/반응하기 위한 믿음
3. 사람의 실패
4. 심판 -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여 주는 것

이런 면에서 세대주의를 들여다보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영 체계들과 이것들로 인한 시대들을 바르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데 있지, 결코 세대가 몇 개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세대를 나누는 방법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인정하므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며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더 이상 인간 제사장 체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아담의 타락 이전
2.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짐승의 희생)
3. 율법 -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4. 은혜 - 그리스도부터 현시대
5. 천년왕국

위의 다섯 개 경영 체계 혹은 세대는 누구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러한 경영 체계의 앞뒤로 확연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결코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 이 외에도 위의 둘째 기간인 '아담의 타락에서 모세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다른 경영 체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 경영 체계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2.1 아담의 타락에서 노아까지 -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 경영 체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 2.2 노아부터 바벨탑까지 -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3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 나오면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마도 스코필드 이후의 근대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곱 개의 경영 체계/세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일곱 개 중 앞의 여섯 개는 주후 1700년경에 와츠가 제안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일곱 개 외에도 어떤 분들은 7년 환난기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다른 경영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경영 체계는 모두 아홉 개가 됩니다.

이렇듯 세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대의 수에 대해서는 두 개에서부터 아홉 개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인류 역사에서 일곱 개의 경영 체계만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성경에 확연히 구분되는 경영 체계들이 있으므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C.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다

뒤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⁵⁾ 이들은 대개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천년왕국 시대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단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나누다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곧 영생은 창조물이 창조자로부터 거저 얻는 것이지 자기 행위를 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십니다. 사람의 삶에서 햇빛, 물, 공기같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다 거저 주어집니다.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만 사람이 돈을 주고 사거나 힘을 들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진대 공기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이단 교리이며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결코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거저 얻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첫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그들은 다 이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의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5) 이것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미국의 렉크맨과 그의 추종자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갈1:8-9).

세대주의의 이점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이점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8장 21-24절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이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교하며 이런 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구원받은 뒤에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갈3:24).

또한 창세기 4장 9-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같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마25:35-36)

문맥에 상관없이 이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에베소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문맥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마24:3)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할 대환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그때에’(then)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즉 열 처녀 비유는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려는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된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난 자들은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마태복음 7장 15-23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 즉 믿음이 있으면 -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 즉 믿음이 없으면 -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마7:18). 물론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바로 그 위에 1-8절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칼을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눅22:36).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바는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0장 5-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고전15:1-4).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의 시작부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마3:2; 4:17). 물론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

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21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인 베드로는 22절에서 즉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

그러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인간/세상 경영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구원의 방법이 다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즉 구약의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한 ‘하늘에서 임하는 왕국’은 연기가 되고 교회라는 새로운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 2:11-12)

그러나 교회의 출생 이후에는 인류가 셋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고전10:32)

경륜주의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는 것을 바르게 보고 문맥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누구라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교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와 또 거기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은 대부분 이런 차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경륜의 제사장(사제, 신부), 성전(성당), 촛불, 물 뿌리는 것, 향 피우는 것 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바티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 형제들은 1500-1600 년경에 로마 천주교를 떠나면서 그들의 오류들을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고 교회를 택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들도 천주교회와 비슷하게 구약처럼 예식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할례가 성도들의 유아 세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촛불과 향, 예전을 중시합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 그리고 몰몬교 등도 구약의 이스라엘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하여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음식 규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의 문제는 한결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자기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배척하고 죽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맞아들일 때가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찢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슥12:10).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68절에 있는 불순종의 저주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너희[교회]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유대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롬11:28-29).

사무엘기하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1. 다윗의 가족을 통한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삼하7:10)
2. 다윗의 왕좌가 그의 씨를 통해 영원히 확립되는 것(삼하7:13)
3. 죄로 인한 형벌은 있으나 약속의 취소는 없다는 것(삼하7:14-15)
4. 다윗의 집과 왕국을 영원히 확립하는 것(삼하7:16)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의 왕좌를 상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마1:1) 이에 그분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과 왕좌를 세우실 것입니다(사 9:6-7).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29절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옆으로 치워 놓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그들을 그들의 고토에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이룰 것을 보여 줍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어거스틴 사상과 그것을 이어 받은 칼빈주의에 빠져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 때에 다음과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회복된다(슌10:6-12).
2.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아 3분의 2가 죽고 오직 3분의 1만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슌13:8-9). 우리 주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대환난이라고 말한다(마 24:21).
3.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슌12:10-13:1).
4.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신다(슌14:1-21).

세대주의의 위험

세대주의라는 신학 체계가 성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좋은 틀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 체계를 너무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 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본이 되는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어떤 세대에서는 믿음 외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 체계 전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격하며 미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몇몇 과격한 이론들로 인해 어떤 신학 체계 전체를 나쁜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위협성과 그것에 대한 반론 및 해결책을 보여 줍니다.

A.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 신자들이 한 형태의 고정화된 특정 방식의 세대주의 교리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개의 경륜이 있지만 성경 신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어떤 사람의 특정 방식만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러크맨(Peter S. Ruckman)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경륜주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경에 몇 개의 경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모든 조직 신학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비교해서 시험해야 합니다(행17:11; 고전14:29; 살전 5:21).

스코필드(C. I. Scofield), 라킨(Clarence Larkin), 웨이퍼(Lewis Sperry Chafer)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스코필드와 라킨은 그 시대의 신학을 반영하며 창세기의 재창조⁶⁾를 믿었습니다. 러크맨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신학에 ‘믿음 더하기 행위’라는 구원 방식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여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러크맨이 운영하는 미국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들은 한결같이 구원 방식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킵니다.⁷⁾

한편 최근에는 미국 델러스 신학교의 라이리(Charles Ryrie), 월브우드(John F. Walvoord), 펜테코스트(Dwight Pentecost) 등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모든 경륜을 통해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경륜주의 체계를 채택한다 해도 이스라엘과 교회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다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현시대에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숨겨 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6)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땅이 이미 한 번 멸절되었고 3절부터 나오는 창조 기사는 첫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했다가 멸망한 옛 땅을 다시 창조하는 것(재창조)을 기술한 것이라는 믿음이다. 20세기 초에 진화론의 공세에 몰린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스코필드 등의 재창조 해석에 의지하여 창조와 진화 사이의 간격을 매우려고 시도하였고 이 믿음은 오랫동안 많은 근본주의자들 사이에서 의심 없이 수용되고 공유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성경 과학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구와 우주의 형성 연대가 성경 기사 그대로 6,000여 년 정도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근본주의 학교에서 재창조가 아닌 창조를 믿고 가르치며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러크맨 추종자들은 대개 재창조를 믿음의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

7) 한국에서는 이송우씨가 대표로 있는 말씀보존학회가 러크맨주의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B.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과격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경륜을 나누고 성경의 모든 구절을 조각조각내고 만다

이런 체계는 흔히 ‘급진적 과격한 세대주의’(Hyper-dispensationalism)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등을 급진적으로 과격하게 구분하고 조각냅니다. 여기에는 벌링거(E.W. Bullinger), 스템(Cornelius Stam)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니다.

(1) 사복음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히2:3-4). 비록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차이가 없음을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에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2)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계시된 것들과 다르며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요한 서신 등은 신약 시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복수)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엡2:20).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며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지 않습니다(벧후3:1-2, 15-16).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스토퍼(Douglas Stauffer)는 러크맨의 교리를 토대로 지은 자신의 책 「One Book Rightly Divided: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Bible」(2000, McCowen Mills Publish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바울만 교회의 대변인이다(17쪽).
2.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난기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20, 27쪽).
3. 환난기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23쪽).
4.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지 않는다(23, 29쪽).
5.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26쪽).
6.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29쪽).
7. 요한일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56쪽).
8.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였다(175쪽).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믿음 더하기 행위’ 공식을 주장하고 야고보서, 히브리서 같은 일반 서신들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런 것은 다 불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C.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경륜과 경륜 사이에 변천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바뀌는 변천기 역사를 기록하므로 사복음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나(마2:2; 눅2:25-39)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시며(마16:18) 마지막 28장에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의 대상을 이스라엘로만 한정하면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현시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며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펼쳐지는 그 내용은 거의 유대인들의 예언 성취를 다룹니다. 또한 타 언어(방언)의 은사 역시 이스라엘을 위한 증거입니다(고전 14:21-22).

한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24-28절의 아볼로와 19장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받았고 아직 신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신약의 교리, 즉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는 시기에 살았습니다.

D.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현시대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 혹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 등을 이런 부류의 책으로 여기고 읽지 않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서 현시대 크리스천들을 향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롬15:4; 고전10:6, 11).

E.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글자로 대하므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세세히 글자로만 대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교훈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바리새인들이 범한 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즉 경륜을 바로 나누어서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지만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권능이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글자로 성경기록을 주시고 경륜에 따라 바르게 성경을 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성경기록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글자만 논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놓칩니다. 그들의 영적 생활은 말 그대로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적 교만으로 인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분리하여 홀로서기를 하려 하므로 국내외에서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성경 신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힘써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 교리 같은 것은 성도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교리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 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올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때가 이를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딤후4:3-4). 지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리를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교리를 바로 알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해석 체계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 체계는 크게 문자적 해석 체계와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가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체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의 모든 단어를 문맥에 따라 읽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체계를 따르면 성경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거의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비유적 해석 체계를 견지하면 해석자에 따라 성경의 단어들도 달리 해석되므로 궁극적인 결론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전자의 해석 방법은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해석 방법이고 후자는 천주교와 또 장로교 같은 개신교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언 부분에 가면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한쪽이 다른 쪽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 방법에 따라 성도들의 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적인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러므로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차이점 인식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본래 그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방식이 바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공활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영원을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도 달랐습니다. 노아와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방식도 달랐습니다. 노아의 의무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수백 년 뒷사람인 솔로몬의 의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되는 진리의 정도 차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에 다 주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다윗에게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7).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요 16:12).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갈1:11-12; 엡3:3-5 참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죽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계1:1-3, 9-12 등)

물론 이 같은 진리의 계시 방식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모든 진리를 다 알려 주십니까? 아니면 차츰차츰 알려 주십니까?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젓'이 필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벧전2:2; 고전3:1-2). 초신자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것을 소화해 내지 못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아직 기하학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하학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른바 성경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성경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기간에 - 주전 1500년경에서 주후 100년까지 -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약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도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 심지어 복음서 한 권도 -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이고도 진보적으로 계시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성경을 한 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역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담: 제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성경 같은 건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17:1; 18:1 등).

모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윗: 제 성경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리고 제가 기록한 시편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제게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 제가 소유했던 성경은 전체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저는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에는 다윗 시대의 성경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공훈과 은혜를 베푸셨으며 사람과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경륜(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엡2:8).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창15:6)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롬4:3).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고(롬4:6) 신약시대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롬4:5)! 노아, 이사야, 베드로, 바울 등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값없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호의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은혜에 행위를 더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속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 혹은 각 시대를 경영하시는 -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에 갈 때 어린양을 가지고 갑니까? 어린양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죄로 인한 희생물로 그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까?(레3:7; 4:32; 삼상7:9 참조)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짐승을 희생물로 드립니까?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은 짐승을 희생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런 경우도 고려해 봅시다. 오늘날 토요일(일곱째 날)에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토요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까?(출35:2 참조) 실제로 토요일에 나무 가지를 쭈다가 죽은 예가 민수기 15장 32-36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에는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불린 특별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입니다(벧전2:9; 계1:6).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부모가 아기에겐 할례를 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유대인 아이의 부모에게 할례는 필수였습니까? 선택이었습니까?(창17:10-14 참조)

아담이 살았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될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창2:16-17).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먹어서는 안 될 열매 곧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루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까? 솔로몬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차이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7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보면 부활 이후에 복음 선포 대상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도 때가 바뀌자 -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자 - 내용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경륜 전후의 차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각 시대마다 핵심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놀라운 변화와 차이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건들이 있고 이것들의 앞뒤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사람의 타락(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 노아 시대의 대홍수
- 바벨탑 심판
-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
- 율법 수여(출19-20)
-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 성령 강림(행2)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계19)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있을 천년왕국 시대를 살펴봅시다. 먼저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짐승들을 생각해 봅시다(사11:6-9). 그때가 되면 짐승들의 습성이 바뀝니다. 사자 같은 육식성 짐승이 채식을 합니다. 현 세상에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마24:6-7).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미4:3). 거기서는 다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해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막16:15 등). 그런데 과연 왕국 시대에도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이사야 11장 9절 등은 이런 일이 필요치 않음을 보여 줍니다. 스가랴 13장 3절을 보면 이때에 대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즉 대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대주의자란 성경을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이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게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륜/세대의 뜻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dispensation’은 이 단어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사용한 ‘디스펜사티오’(dispensatio)라는 라틴어에서 나와 영어로 정착된 말입니다. 이 라틴어 동사는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 혹은 ‘배분하다’란 뜻의 복합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들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1. 나누어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혹은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체계
3.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분배해 주는 행위

이 단어의 용도를 신학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위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dispensation’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세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특정한 민족이나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단계... 또한 어떤 체제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

스코필드(C. I. Scofield) 같은 세대주의자들이 경륜에 대해 내린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경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경륜’과 ‘시대’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는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사는 집의 일을 나누다, 할당하다, 집행하다, 혹은 관리하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와 영어의 ‘economy’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미아’는 다음과 같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oikos = 집(house)
2. nomos = law(법)

따라서 이 단어는 ‘한 집안의 법’ 혹은 ‘집안 법’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집안의 법’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에는 구성원이 따라야 할 ‘집안 규칙’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까? 규칙을 어겼을 때 꾸지람을 듣지는 않습니까?

‘dispensat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그리스어는 또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보면, 경영 체계를 집행하는 관리자(오이코노모스)는 재산의 청지기나 관리자 혹은 회계를 맡은

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륜/세대’ 혹은 ‘경영 체계’란 의미의 ‘dispensation’의 중심 개념은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먼저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A. 청지기직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 - 물건이나 재산 - 를 돌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를 둘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말 10필과 보트 8대, 20만 평의 땅과 500두의 소, 3개의 풀장, 25대의 자동차, 8대의 트럭 그리고 하나의 유전(油田)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들을 잘 꾸리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책임을 맡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청지기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
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는 이 사람의 손에 맡겨졌습니다(창39:4, 6).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며 그의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이 ‘신실한 자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자 그 집의 소유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의 관리인은 요셉이고 집의 소유주는 보디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보디발의 소유이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B. 특권과 책임

보디발의 소유를 관리하는 요셉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데 대한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크고 놀라운 약속을 쥐어 주셨습니다(창12:1-3; 17:1-8).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거룩한 율법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출19-21장).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엡3장). 믿는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릴 권한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청지기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멋진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직장에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만 이 점포에서 일하면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많은 것을 배우겠고 값진 경험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하면서 얻는 유익이 많을 것이며 시간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꾸준히 신실하게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주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르고 출근 시간에 지각하고 고객에게 불친절하다면 어느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점포의 주인은 당신이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맡은 것을 바르게 처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직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맡기셨고 그것을 바르게 꾸려가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륜/세대 요약

이제 다시 ‘경륜’이라는 단어를 요약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경륜’이라는 말은 ‘청지기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경영 체계는 한 청지기직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집주인

청지기직이 있다면 집의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안의 법’을 세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책임, 특권을 규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집의 주인이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히3:4 참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창14:19, 22).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2. 집

주인이나 소유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세상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거기 거하는 자들도 그러합니다.”(시24:1; 창 18:25; 출9:29 참조)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자신의 뜻과 지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십니다.

3. 청지기

집주인과 집 말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집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직무를 맡습니다(사도행전 17장 30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곧 인류입니다(딤후1:7; 고전4:1-2; 벧전4:10).

이제 성경의 경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집주인: 살아 계신 하나님
2. 집: 세상
3. 집의 청지기: 인류

경륜은 여러 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집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늘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 각자에게 적용된 집안 규칙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집안 규칙은 베드로 시대의 규칙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 규칙이 다르다면 경영 방식 혹은 경륜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A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B라는 사람의 집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 B 집의 집안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집의 규칙 중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가정부는 B 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륜이 단순히 ‘집안 규칙’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각 경륜에 단지 규칙만을 주시지 않고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진리도 주셨습니다. 규칙과 법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다른 집안 규칙’을 말한다고 해서 각 경륜에 주어지는 규칙과 책임과 특권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는 규칙이나 특권이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봅시다. 김철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에게는 세 가지 ‘집안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세대 차가 나는 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맡겼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권뿐만 아니라 장남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기 김철수 씨 집안의 ‘세 가지 규칙과 특권’이 있습니다.

1. 열 살짜리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8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들 것
- 매주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칙을 준수할 것
- 차를 모는 특권은 주어지지 않음 등등

2. 열다섯 살 먹은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오후 10시에 취침할 것
- 매주 막내보다 많은 용돈이 지급됨
- 숙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 아직 차를 몰 수 있는 특권은 없음 등등

3. 스무 살 된 아들

- 부모에게 순종할 것
- 부모를 존경할 것
- 거짓말이나 도둑질하지 말 것
- 취침시간에 대한 규정 완화
- 용돈은 없음 - 스스로 벌어서 쓸 것
- 졸업했기에 숙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운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주어짐 등등

세 아들에게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원리가 경륜에도 적용됩니다. 앞에 나온 동일한 아버지(김철수 씨)에게 다른 시기에 태어난 세 아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과 다른 때 태어난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더해진 규정이나 책임이 있고 그대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기에 태어나 서로 다른 경륜에 살았던 세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4. 노아 - 홍수 이후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창6:9)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히11:7과 비교)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창9:6)
- 짐승의 희생을 드림(창8:20)
- 안식일을 지키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5. 다윗 - 모세의 율법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신8:1)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출21:12)
- 짐승의 희생을 드림(레1-5장)
- 안식일을 지키고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음(레12:3; 신5:12-14)
- 믿는 이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명령은 없었음

6. 바울 - 교회 시대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특권과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노아나 다윗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됨)
-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
-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요일2:3-5)
-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함(롬13:1-4)
- 짐승의 희생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음(히10장)
- 안식일을 지키라거나 사내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필요 없음
-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받음(마28:19-20)

이처럼 세 가지 경륜 속에서 꾸준히 남아 있으면서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뀌거나 변화된 사항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경륜이나 청지기직이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령 어느 경륜에서나 거짓말, 살인,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히11장 참조). 즉 경륜이 바뀌어도 여전히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200년 전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TV나 자동차,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환경이 오늘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차하는 대신에 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선 세탁기 대신에 빨래판과 물, 비누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편리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만 맞추어 놓으면 되는 대신에 밖에 나가 장작을 구해다가 불을 때야 합니다(물론 오늘날에도 장작으로 난방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살았다면 해야 할 일, 즉 책임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같은 것도 있겠지요. 가령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는 모두 동일한 집안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경륜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 규정과 권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바울, 요한도 같은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에 그 규정과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속한 동일한 규정과 권리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경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란 어떤 사람인가?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이해하며 - 실로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셨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모두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아볼까요? 세대주의자는 적어도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의자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세대주의자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시대마다 다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가령 다윗은 노아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은 다윗이 들어본 적도 없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자는 48쪽에 기술된 경륜 전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는 다음 페이지의 표에 있듯이 대개 인류 역사에 일곱 가지 경륜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죄 경륜 전에는 영원 전 과거가 있으며 천년왕국 경륜 이후에는 영원 후 미래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각 경륜의 이름 옆에는 그 경륜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왕국 경륜은 아직 임하지 않았으므로 없음).

각 경륜은 하나님이 독특한 경영방식과 특권을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물론 그 기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각 경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규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경륜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 경륜에 서보다 더 많은 진리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됨을 의미합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의 일곱 경륜/세대>

경륜	요약
(1) 무죄(아담)	무죄 경륜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막을 내린다.
(2) 양심(에녹)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 아래 살고 있다.
(3) 인간 정부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은 이 경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 정부 아래 살고 있다.
(4) 약속(아브라함)	이 경륜 이후에도 약속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갈3장).
(5) 율법 (다윗, 침례자 요한)	율법은 씨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지만 십자가로 막을 내린다.
(6) 은혜(바울)	다른 경륜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증언된다(엡2-3장).
(7)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경륜에도 있었지만 왕국 경륜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 민족들을 치리 하심으로 눈에 띄게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으로 이어진다.

2.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문자적’(literal)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라는 뜻을 지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은 단어들을 기본적으로도 평범한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의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 하거나 없는 뜻을 만들어 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고쳐서 이해한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출20:11; 창1장).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6일은 그냥 6일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6일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온 우주가 24시간의 하루가 여섯 번 지나면서 형성되었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이 ‘6일, 즉 여섯 개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창조의 날들은 말 그대로의 날들이 아니라 ‘경륜’ - 긴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며 이 경우 ‘날=경륜’은 그 기간이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달합니다 - 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가 6개의 매우 긴 시대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즉 “날은 날이 아니라 매우 긴 시대를 의미한다.” 등).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른 아닌 문자 그대로의 ‘6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전반부의 2-7절을 읽어 보면 ‘천 년’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년 동안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 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천 년은 그냥 천 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 년 동안 다스리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천 년에다 다른 의미를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문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문을 읽는 데 첫 면에 ‘부시 대통령 4일 예정으로 중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방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거야. 중국도 실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일거야.” 이것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해석입니다. 본래의 의미를 제쳐 둔 채 엉뚱한 의미를 취하면 당연히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중국’은 ‘중국’으로, ‘4일’은 말 그대로 ‘4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이며 바로 이런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편지가 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 전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덕분에 이틀 동안 병원신세를 졌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설마 ‘말’은 ‘코끼리’를, ‘다리’는 ‘머리’를, ‘이틀’은 ‘두 달’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친구가 ‘코끼리’를 말하고자 했다면 왜 굳이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A. 간단한 규칙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접하는 단어들을 - 그것들의 정상적인 의미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 항상 문자적이고도 자연스러우며 평범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의미로 말이 잘 통한다면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의 ‘날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께서는 능히 우주를 6일에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은 그냥 ‘천 년’일 뿐입니다.

물론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 단어의 고유한 의미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양들이 통과하는 실제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요10:1, 2, 7). 그렇게 이해하려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문을 통해 어떤 장소를 드나듭니다. 방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문을 열고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문자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며 제자들은 실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원자와 그를 믿는 이들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믿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취하사 제자들에게 “반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6). 그리고 잔을 취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6:27-28). 그 빵이 정말 주님의 몸이었을까요? 그 잔이 실제 주님의 피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실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예수님도 이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다.

이것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말합니다. “이봐, 이게 내 아내야.” 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과연 한 장의 사진이 실제 자기 아내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는 그저 은유 혹은 환유라 불리는 수사법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는 실제 “이 사진에 내 아내의 모습이 있어. 내 아내 사진이지. 이 사진을 보면 내 아내를 떠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잔은 내 피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고전11:24-25).

B.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지로 우리 생각에 성경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놔두고 거기 있는 단어에다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냇가에서 돌 다섯 개를 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돌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은 용기를 상징하고, 둘째 돌은 믿음을 상징하며, 셋째는 힘을, 넷째는 승리를, 다섯째는 성공을 뜻합니다.”

과연 성경이 이 돌들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합니다. 이 돌 중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용기와 믿음을 겸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장(삼상 17장)을 읽고서 알게 된 내용이지 다윗이 집어든 돌들에서 추론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의 위치와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어에다 이상한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3.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유대인들)이 교회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수태가 되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 속으로 태어났습니다(행2장). 그 이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말합니다(롬9:4-5).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유대인’이라 불립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들을 통칭합니다. 즉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입니다(엡2: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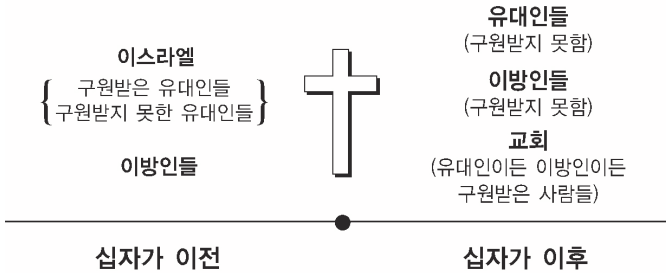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유기체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는 모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23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성령의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고전12:13).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이 점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문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영희가 제주행 무료 항공권에 당첨되었다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신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영희가 부산에 가게 됐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성경을 잘못 읽을 때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이스라엘 각각을 향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임의로 취하여 그것들을 교회를 위한 것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철수의 부산행

교회 시대 사람들 구분

(고전10:32)



티켓을 영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롬11장과 비교).

결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수신자에 따라 바르게 구분해서 읽으면 누구라도 쉽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를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신학 체계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이 없이는 성경을 그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국어를 배우듯이,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그 안의 내용과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사실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누구라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보편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든 계획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눈으로 관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정상적인 해석 체계를 통해 바른 교리와 실행이 이 땅에 정착돼서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이단 교리와 가정을 망치는 '소종파들'(cults)의 각종 이단 교리가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독수리와 14만 4천 명



Eastern Eagle and 144,000

19세기 중반 전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의 이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을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0년간의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만이 구원에 참여하여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밀러에 의해 시작된 안식교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거하여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1차 재림이 1844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다가 주님의 재림이 없자 크게 실망한 뒤 지금은 그분이 조사 심판 중이며 2차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펍니다.

몰몬교는 종말론과 미국인 선민의식에 빠진 조셉 스미스가 도를 닦다가 UFO의 인도를 받고 특별 계시를 받아 추종자를 거느리게 된 미국인들의 토속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계룡산에서 도를 터득하여 흑세무민하는 이단의 한 종류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는 아메리카 대륙과 미국인들에 대한 강한 선민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계 이단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부의 신도들에게 신비적 종말론을 주입하여 교회와 교주에게 충성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만 들어가면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신도들을 부추겨 재산을 탈취하고 맑은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 이런 데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어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강한 확신에 잠겨 바른 것을 말해 주는 모든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박태선의 전도관을 필두로 해서 역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을 미끼로 내걸며 동시에 한국 민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자생한 사이비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국의 이단들처럼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강하게 주입하고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강요하며 특히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고양시킵니다.

2013년 3월 4일자 <한겨레 21>은 한국 내 사이비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는 국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하기 위하여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음은 그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⁸⁾

신과의 합일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신앙 행태는 지금까지도 한국 개신교계 소종파의 주요 특징이다. 2000년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 의 종교 단체 실태 조사 연구’는 개신교 계통 소종파를 크게 △신비주의 △종말론 △외국계 신흥종파 3가지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것은 신비주의 계열이다. 신비주의 계열은 다시 △베뢰아 아카데미(귀신론) 분파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 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로 나뉘는데, 최근 개신교계가 대대적 배척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신천지)은 장막 성전 분파에 속한다.

장막 성전은 1960년대 경기도 과천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서울 대공원이 들어선 막계동 일대가 이들의 ‘성지’다. 신천지 교회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장막 성전은 1966년 한국 소종파 운동 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유재열(당시 17살)이 세워 화제를 뿌렸다. 장막 성전이란 이름은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내가 이일 후에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유재열은 1960년대 초부터 부모와 함께 서울 상도동의 호생 기도원을 다니며 신비주의 신앙에 몰입했다. 그는 1965년에 예수의 계시를 받았으며 이듬해 ‘종말 심판의 피난처’라는 장막 성전을 설립했다. 전성기에는 청계산 저수지가 있는 막계동 일대에 신도 2천 명이 모여들어 집단 생활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의 투서 때문에 그가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나온 뒤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1980년 기성 교단에 교회를 헌납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귀국해 사업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떠난 뒤 장막 성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무지개 증거 장막 등 여러 갈래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재열은 자신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며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의 성서 해석과 교리의 기본 골격은 핵심 추종자이던 이만희(현 신천지 총회장)를 통해 지금의 신천지에 고스란히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다.

신천지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소종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존재와 함께 신비주의와 종말론적 흐름이 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종교 문화 연구소 이진구 연구실장은 ‘예언서·계시록의 종말론과 민족주의적 선민 사상이 결합해 재림 예수가 한국에 온(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소종파에서 보이는 보편적 흐름’이라고 했다.

이런 흐름이 형성된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한국교회사 연구자인 이덕주 감리교 신학대 교수는 ‘교권화된 기성 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체험에 대한 열망에서 싹튼 해방 전 신비주의 그룹이 전쟁의 참화와 극심한 빈곤의 경험 속에서 종말론적 계기와

8)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4012.html

만나고, 때맞춰 등장한 카리스마적 개인들이 이 흐름을 주도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등장한 소종파들은 처음엔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 머무르며 활동하지만, 교세가 늘고 주류 교회의 배척이 시작되면 점차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 그들의 교주들은 선지자나 성령, 재림 예수를 자처하다 말년엔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박태선(천부교)·안상홍(하나님의 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탁지원 국제종교 문제 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가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밖에 하나님의 부인이나 보혜사 성령, 혹은 성서 속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소종파 집단 안에서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를 절대화하다 보니, 공교회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횡령이나 폭력, 추행 같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고 결국 사법 권력의 개입을 부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기사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종파 사이비들의 특징은 일단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으로 규정하여 성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통일교에서는 이미 재림주가 재림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 '해 돋는 데', 즉 동방의 나라인 한국이라고 해석합니다(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해 돋는 데'라고 하지 않고 '동쪽'이라고 말함). 따라서 통일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주인 문선명이 바로 그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전도관에서는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말세가 된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교주인 박태선이 곧 감람나무이며 그가 왔으므로 지금이 말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악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만이 천년 성에 들어가고 호조건에서는 14만 4천 명 외에도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도관의 신앙촌 입주자의 수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고 내놓은 주장입니다.

요즘 교회들에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성경이 온통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바로 풀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친절한 기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보고는 목사냐고 묻고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친절한 분으로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성경 해석 방법이 기묘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34-35절을 인용하였는데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두 비유이며 심지어 창세기 이후의 모든 것이 다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유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신천지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는 개역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분의 말씀은 모두 비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려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룡산 도사들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흥정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without a parable)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요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쉬운 비유를 들어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a parable’인데 이것이 개역성경처럼 ‘비유가 아니면’으로 잘못 번역되면 수십만의 사람들을 무지와 저주 속에 빠뜨립니다. 이런 오역으로 인해 신천지에 빠져 패가망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신천지는 성경 전체를 이와 같은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로 풀고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로 신천지에 입교하면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천의 청계산 부근에 임하게 되며 그들은 육체로 영생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면서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것이 한국 민족의 우수성과 최근에 이루어지는 한류 열풍입니다. 14만 4천 명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며 이런 일을 위해 싸이 등의 한류 열풍이 -비록 저급하지만 - 온 세상에 파급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주가 있는 한국은 성지 중의 성지이며 14만 4천 명에 속할 한국 사람들은 선민 중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천지 역시 과거에 토속 종파들이 사용하던 방법대로 비유 해석(영해)의 요한계시록 설교와 ‘동방의 독수리’ 타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는 좋은 나쁜든 한류 붐을 일으킨 것은 싸이를 비롯한 출중한 한민족 가수들 - 신천지의 한민족 선민사상에 따르면 - 인데 신천지는 이들이 일으킨

한류 열풍은 선민사상을 증명하기 위해 대대 선전하면서도 이런 연예인들의 한류는 저급 한류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영적 한류가 새로운 차원의 한류라고 주장합니다.⁹⁾

다음은 ‘새로운 한류 신천지 한류’라는 제목으로 신천지 뉴스에 난 기사입니다.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톱스타가 된 싸이는 이제 세계 각국을 누비며 노래한다. ‘강남 스타일’의 B급 정서는 전 세계인에게 통했고, 덕분에 싸이는 좋게든 나쁘게든 국가 홍보에 공을 세웠다. 최근 후속곡 ‘젠틀맨’의 관심과 인기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번 ‘젠틀맨’의 가사는 물론 뮤비의 선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위 선양이니 창조 문화니 하며 싸이를 온통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그 내용과 질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한류란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서가 세계에 전파되어 널리 관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한류란 비단 대중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섭(막힘이 없이 여러 분야에 통합)의 흐름이어야 한다. 이에 최근 세계의 종교인들을 눈뜨게 한 새로운 한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4월 중순, 인천 공항에 다수의 외국인 목사들이 내한했다. 미국,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각국의 비행기가 착륙했다. 이 나라들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의 4차에 걸친 요한계시록 순회강연을 접한 국가들이다. 총회장은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와 방송 출현을 통해 뚜렷한 계시 복음을 전했고, 각국 정상과의 대담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평화의 재료로서 ‘하늘 문화’를 제시했다.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전에 들어 보지 못했던 미래에 관한 새로운 해법은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했다. 이미 20년이 넘는 목회 연륜과 수만의 성도수를 가르치고 있는 목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종교 유학을 오게 된 것이다. 이들은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직접 확인하며, 비유 풀이부터 요한계시록의 실상까지 보름부터 길게는 석 달까지의 일정으로 성경 전반을 공부하고 있다.

5월 잠실 올림픽 홀에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가 열렸다. 이들은 행사에 참석하여 자진해서 단상에 올라 뜨거운 간증을 토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고, 성경 육천년의 역사를 깨닫게 해 준 약속의 목자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한 지금껏 무지의 시대를 살던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 것임을 본국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많게는 천만(?)이 넘는 성도를 거느린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탄성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과연, 이 역사가 확실한 증거와 비전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흐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신천지 한류, 오늘도 신천지는 하늘의 문화와 평화의 정신을 통하여 혼돈한 지구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9)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4>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류가 대세인 오늘날, 구습을 뛰어 넘어 신한류를 개척한 신천지... 이제는 말세론이 아닌 창조론을 논할 때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신천지는 신패러다임의 주자로 우뚝 섰다.

사이비들이 선민의식 고취와 함께 흑세무민하는 양상은 전 세계 대부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가 폄하한 사이가 바로 장막 성전의 창시자인 유재열의 사위라는 점입니다(‘해 아래 새 것 없다’ 신천지의 계보, 교회와 신앙).¹⁰⁾

사이를 비롯한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K-팝 가수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르스의 눈, 루시퍼, 단일세계정부, 천주교 마리아 찬양 등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한류 열풍과 하나님의 선민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의 공작을 통해 한국인들이 마귀의 사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찬양하는 한류 열풍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영해로 역시 우매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안상홍 증인회의 동방의 독수리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안상홍님)’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¹¹⁾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성경 66권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영적 고레스이신 안상홍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동방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개역성경 사46:11)

동방의 독수리는 구원자께서 동방 나라에 사람으로 등장하시어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훼방자들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성경의 예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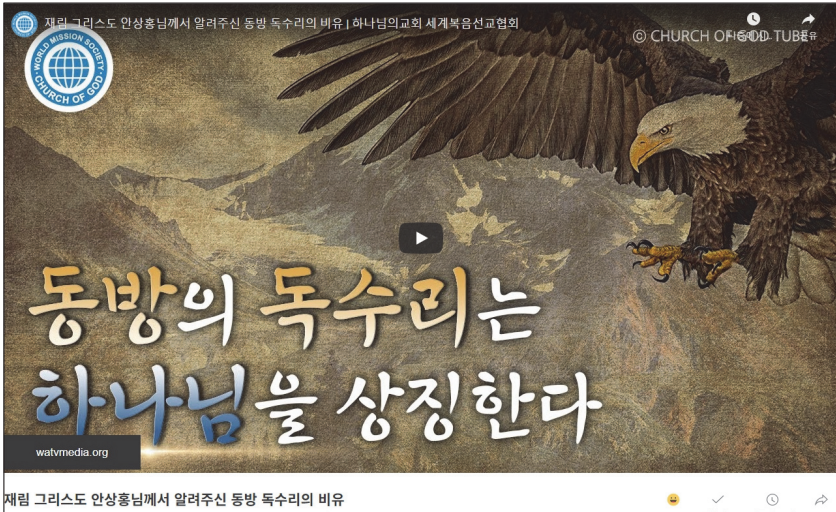
성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정을 알려 주고 있음을 발견할

10) https://keepbible.com/bbs/board.html?board_table=03_05&write_id=5629

11) <http://cafe.naver.com/festival1004/1183>



동방의 독수리는
대한민국에 등장하신
하나님이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징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된 동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려는 의도는 억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고(계5:5)

때로는 어린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요1:29).

또한 포도나무와 (요15장) 성전으로도 표현합니다(계21:22).

하나님을 사자, 어린양, 포도나무, 성전으로 표현하신 데는 각각 뜻이 있습니다.

사체를 먹는 동물에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움직이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성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사체를 먹는 독수리에 하나님을 비유하면 안 된다는 훼방자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독수리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개역성경 출19:4)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개역성경 신32:11)

동방의 독수리로 임하신 하나님은 재림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십니다.

안상홍님께서서는 두 번째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략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안상홍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은 절기 지키는 시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님의 신성을 깨달아 안상홍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통해 우리는 안상홍 증인회 역시 한민족의 우수성을 고취하면서 동방의 독수리가 곧 한국에 임한 구세주 안상홍이라고 주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밧모 섬과 예루살렘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평으로 같은 위도에 있다고 세계 지도에 수평으로 금을 그어 놓고는 한국이 곧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해 돋는 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지도를 펼쳐 수평으로 금을 거 보면 이것이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에 ‘으’이 세 개 있듯이 ‘안상홍’에도 ‘으’이 세 개 있어서 안상홍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추론은 모두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기존 교회들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부산제일교회 박무수 목사의 동방의 독수리 설교인 ‘동방의 독수리의 비밀’(사46:11)을 살펴보겠습니다.¹²⁾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음 속 제일 깊은 곳에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 놓고 회개할 때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예비 된 복이 보입니다.

1. 동방의 독수리는 모략을 이룰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노략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여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요일4:1; 잠13:20). 교회에 가면 흔히 구약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4단계 회개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고후3:14).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 ‘동방의 독수리’를 바르게 깨달아 설교하는 분이 없습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입니다(사46:11).

2. 동방의 독수리는 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략입니다. 모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한 자에게 모략을 주시며 명철한 자가 모략을 얻게 됩니다(잠1:5). 명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사입니다(렘3:15). 모략을 얻은 참 목사가 여러분을 지혜와 명철로 양육하여 넉넉히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참 목사를 지칭하는 ‘동방의 독수리’를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략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악한 날짐승’으로 바꾸어 놓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시107:10-11).

3. 모략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독수리의 특성을 알면 왜 참 목사(목자)를 독수리에 비유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명철한 참 목사가 말씀을 힘 있고 강하게 전하며 모략을 얻은 자로서 사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밝은 눈이 있습니다(잠24:5, 잠20:5). 참 목자는 모략으로 성도의 깊은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려 주는 것입니다(눅23:34). 우리도 명철한 자에게서 나오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책망과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잠21:16).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명철한 자가 동방의 독수리이며, 이 뜻을 동방에서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참 목사의 설교를 사모하며 명철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2) http://www.church.or.kr/board/board_view_01.asp?brdid=20&idx=1069

박무수 목사는 동방의 독수리가 참 목자 - 물론 자기 자신 - 를 가리킨다고 영해하고 있습니다. 박무수 목사는 영해의 대가입니다. 그의 4단계 회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입었던 옷을 로마 병사들이 4조각으로 나누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4조각으로 나뉘었으니 무조건 4단계 회개가 필요하다고 영해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체계를 영해 체계라 합니다. 이런 해석 체계에서는 교주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곧 그 말씀의 확고부동한 해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국내 자생 사이비 교주들은 성도들의 민족의식 함양을 위해 ‘동방’이 나오는 구절을 찾고는 문맥에 상관이 없이 그것을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만든 집단이 바로 동방의 독수리가 임하는 곳이요,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14만 4천 명의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대호라는 작가가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안철수를 연상케 하는 18대 대통령 안철주를 주제로 한 미래소설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민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의 후예로서 미래에 동방의 독수리로 세상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는 성지 중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고 지중해 서편에서 동방으로 이동해 온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는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서 동쪽을 뜻하는 east라는 단어는 세 군데(사41:2; 43:5; 46:11)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43:5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동쪽에서 데려오신다는 말이므로 이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나머지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 **존재**가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내주고 쫓겨 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할에 내주었으므로**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나니(사 41:2-3)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사46:11).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후에 그들을 해방시킬 사람을 동쪽의 메대/페르시아에서 세우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41:2-3을 주셨습니

다. 그리고는 사44:28-45:3에서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 즉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일으키실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46:11에서 다시 한 번 고레스를 가리키며 동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메대/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에 있고 또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41:25에서 동일하게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그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를 것이요, 또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밟되 회반죽을 밟는 것같이 밟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같이 밟으리라(사41:25).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한국의 이단 교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메대/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해석은 사적인 해석이요, 비유 해석이며 영해의 더러운 산물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그토록 칭송하는 동방의 독수리는 바르게 된 성경에서는 ‘동쪽에서 오는 굶주린 새’로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새는 까마귀도 될 수 있고 육식을 하는 새는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꼭 독수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명백히 개역성경은 이것을 오역하였습니다.

영어 KJB와 ASV는 이 단어를 ‘a ravenous bird’(굶주린 새)로 번역하였고, NKJV, NASB, NIV와 RSV는 ‘a bird of prey’(희생물을 먹는 새)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역본도 개역성경이 독수리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를 독수리, 즉 eagle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상홍 중인회에서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면서 언급한 출19:4와 신32:11은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국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지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유로, 은유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독수리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독수리처럼 일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한 대한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을 내면서 독수리를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동방의 독수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던 이단들에게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개역성경만 고집하고 성경을 바꾼 성서공회를 향해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독수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같이 바르게 번역된 역본으로는 자기들의 영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더라.

5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6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8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만 이천 명이더라.

4절이 말하듯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환난기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을 가리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까요? 개신교 내에 천주교에서 전수받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면 이들은 곧바로 영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등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면서도 육체를 입고 영생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는 앵글로 색슨족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런 사상이 넘어간 뒤에는 이방인(미국인)이면서도 유대인 행세를 하며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리다가 이런 부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는 한민족이 혹은 한민족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동방의 독수리로 둔갑하고 그런 단체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중 극단적인 이들은 심지어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 비유 해석, 즉 영해(靈解)의 추잡한 쓰레기이며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런 데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해의 근원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를 확립해 준 어거스틴과 그의 교리를 그대로 차용한 칼빈이므로 우리는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를 경계합니다. 둘 다 교회의 세상 정치를 위해 성경을 왜곡한 사람들의 틀린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단 종파들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종파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주장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경계하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마25:13).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은 거의 다 기독교회의 성직자 혹은 광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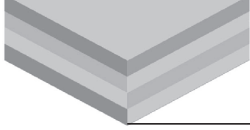
이들은 비성경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 기성 교인과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하고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생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음으로써 이들의 미혹에 대항하며 현혹되지 말고 미혹된 자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를 타파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가 도둑질하기 위해 영해/비유 해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잔혹한 마귀의 한민족 선민사상과 결합되어 한국에서만 가능한 종말론 사이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해석으로 바르게 진리 위에 서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맡은 바 책무를 다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위험한 QT



Dangerous Quiet Time

QT는 Quiet Time, 즉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이런 시간은 어쩌면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인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은 유익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제 생각엔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거기서 자꾸 다른 뜻을 유추해내고 어떻게든 감동과 적용점을 찾으려 하는 그런 QT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기업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조를 짜서 QT를 했습니다. 그날 주어진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저마다 적용이 다르고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나누며 공감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미국 등지에서 많이 하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십여 년 전부터 유행처럼 퍼져 나갔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열방대학 등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세계에서 모인 이들과 QT를 나누면서 그들의 ‘영상’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작은 화분 하나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성경 한 구절에서도 자기만의 진지한 적용과 철학을 발견하는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묵상을 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자기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해 사람들에게 들려주려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위한 생각, 남을 감동시키기 위한 생각을 개발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QT의 파트너가 바뀌면 나눌 내용이나 수위나 코드 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통해 나눔을 잘하는 사람만 부각되거나, 신앙보다는 느낌과 감동에 치중하는 모임이 되곤 합니다.

종교인들은 감동을 원하고 신앙인들은 깨달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종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성경 강해나 영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질책보다 선호합니다.

언젠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하다는 한 교수이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 적 있는데 명성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그 메시지는 심각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나 성경적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도의 구루 오쇼 라즈니쉬

정도에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입술 위 인종의 패인 골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진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하시면서 입을 다물도록 꼭 눌렀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국이 생겼고, 아기는 그 비밀을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며, 자라면서 그 약속을 잇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듣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에는 심각한 교리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와 피의 부패 이후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자기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종의 유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다면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로 태어나 그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해도 어차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희망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어차피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같은 절대자를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배교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하니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와 무척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천동설이 정설이었다가 지동설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미술에서 주된 피사체를 배치할 때 정 중앙에 놓기보다는 화면의 약간 옆에 배치할 때 더 구성미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이 아닌 약간 옆에 놓으셨나 보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지구가 중심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QT는 아니고 작은 깨달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귀납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설교자 등이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독창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은 새로운 논리를 창작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만 생각의 반경을 넓히다 보니 열린 자세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까다로운 진리에 대한 타협과 양보가 없이는 풍부한 예를 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할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비논리와 두루뭇술함 속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고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파워풀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좁은 길로 가면 모든 것이 닫히고 답답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많은 행인들 사이에서의 혼동 그리고 건질 것 없는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참된 자유를 잃게 합니다.

지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논란이 많고 대다수 크리스천들도 지동설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적 운동을 하는 우주를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천동설의 증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는 일은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하며 신중해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과학을 믿으면 틀린 것을 옹호하기 위해 엉뚱한 목상을 하게 됩니다.

QT의 폐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수는 논리적인 사람들보다 감상적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명확한 논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은혜와 감동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함은 간과하고 감상적인 목상만을 좇는 습관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 제1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부수적인 것만 찾아 느끼려 하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무작정 자기 것으로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거나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식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다가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느끼려 하다 보니 그분은 어떤 날은 한없이 자비롭다가도 어떤 날은 무섭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어떤 날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분이 되고 맙니다. 내 입장에서 느끼는 것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알게 되고 그 후에 서로 알게 되며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 하면 세상 논리와 학문이 동원되면서 궤변을 말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전제를 통해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학자는 참신한 자기만의 해석을 시도하고

목사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구하며

크리스천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감동을 찾는다.

이 모두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과 목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스스로가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런 일을 지속하다 보면 진리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망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QT입니다.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초신자 때부터 혼자 목상하며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 절대적인 기준과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각자 느끼는 기준과 개인적인 모습의 하나님만 남아 기독교는 그때그때 다른 ‘상대주의적’ 종교가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계속되면 교리는 교훈이 되고, 좁은 길은 넓은 길이 되며,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요령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목상은 먼저 말씀을 읽고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하나님의 최소한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QT는

초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사 55:8).

바르게 QT를 하려면

진정한 묵상, 바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Q: 매일 QT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QT가 크리스천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뭔가 충격이예요 맞는 것 같아요 QT의 문제점이라고 하신 부분이 지금 제 신앙적인 고민이랑 맞아떨어져서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글을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QT 모임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 글을 보여 주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우선 정확한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잘 아는 것들일 수 있지만 <성경 신자들의 교리 문답 소책자>에 나오는 것들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큰 틀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¹³⁾

A2: 과도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읽고 그 뜻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의 언약인 무지개에 대해서, 심판의 물과 새로운 희망의 빛이 만난 혼합물이라고 해석하더군요. 그럴듯하지만 물은 심판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고 침례에도 쓰이는 것인데 굳이 무지개를 그렇게 풀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리지 않는 것이나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A3: QT 안내서를 버리십시오

개신교단 등에서 만든 QT 안내서나 가정예배서 등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교리나 천주교 신학, 매너리즘에 빠진 해묵은 해석도 그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만 있으면 혼자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이것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각 내용 뒤에 혼자 답을 쓰는 곳이 있어서 검증할 수 없는 틀린 답을 작성하기 쉽고 내용 이해를 돕는 미담이나 감동 스토리 등은 독자를 단단한 식물의 단계로 안내하기보다는 젓먹이 신앙에 머물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A4: 질문에 신중하십시오

주변의 아는 목사님, 멘토, 오랜 경력의 신앙인 등에게 의지하여 답을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탐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3) <https://keepbible.com/Pds1-8/View/3ob?page=1>

그리고 어설픈 크리스천 카페나 교회 홈페이지 등에 질문을 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지식과 바른 상식 안에서 말씀을 다루는 곳을 찾고 분별해 신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질문의 답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성경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겠지요.

A5: 답변에 신중하십시오

신앙 경력이 좀 되다 보면 주변에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때 모르는 것이나 애매한 것은 정직하게 모른다고 해야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욕에서 적당히 답하면 타인에게 바른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떻게든 풀어서 답변을 하려다 보면 새로운 논리 개발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지식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A6: 설교나 나눔에 진지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믿을 만한 리더가 없다면 아무나 말씀을 나누거나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등의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때는 검증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인터넷 등을 통해 함께 듣거나 검증된 신앙 도서의 내용 일부를 한 사람이 전달하고 교육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A7: 적당한 리더가 없다면 바른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르게 번역된 성경은 읽고 그 자체의 뜻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예컨대 영화 <요한복음> 같은 경우, 모든 대사가 성경 구절로만 되어 있는데도 그 은혜가 넘치도록 놀랍습니다.¹⁴⁾ 이처럼 말씀의 힘을 그대로 느끼며 깨닫게 되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후의 나눔은 강해가 필요한 지식적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경이로움, 말씀의 신비 등에 관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지식을 유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묵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함보다는 그분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이웃에게 바르게 전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려는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일 테니까요. 하루하루 바른 성경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가 더해지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 <https://youtu.be/iDk419qulf0>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츠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배송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